

NOROO

노루

2010 WINTER
NOROO magazine
VOL.14





【 N Story #1 】

NEWS	04	NOROO그룹 계열사 소식
NEW YEARS ADDRESS	10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자
FOCUS	12	2010 NOROO그룹 녹색경영 선포식 및 시무식
NEW YEAR GREETINGS	16	노루人 신년사
INSIGHT	20	社訓(사훈)과 經營革新(경영혁신)
ZOOM IN	22	2009 NOROO그룹 인재입문교육
WORLD WIDE	26	노루 유럽진출의 발판-KIST-EU Project

【 N Story #2 】

IN PEOPLE	30	(주)노루페인트 건축도료사업부 서울지점
IN COMMUNITY	34	세상의 모든 헌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손
N_POST	38	NOROO인의 자유기고
HOT ISSUE	42	인테리어 용도로료 '에그리나' MBC 드라마 협찬

【 N Story #3 】

DIY WORLD	44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와 티테이블
ENVIRONMENT	46	희망과 행복의 도시-쿠리티바市
소비자상담실	48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PHOTO CONTEST	49	사진 공모

N Story는? 노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다룬 사보입니다.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디피아이홀딩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전략기획팀 장연언 주임 T:031-467-6527 |
주노루페인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전략경영기획팀 지남철 대리 T:031-467-6128 |
주아이피케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전략마케팅팀 정유진 사원 T:051-580-6183 |
주DAC 경기도 화성시 정안면 금의리 579번지 전략기획팀 백현정 사원 T:031-8059-9502 |
주노루케미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경영지원팀 최홍규 과장 T:031-599-7252 |
대한비케미칼(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527-6 경영지원팀 이수용 사원 T:041-620-6207 |
주노루코팅코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지원팀 박서진 대리 T:031-467-6486 |
주노루로지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총괄지원팀 전희경 대리 T:031-467-6363 |
칼라메이트(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9 업무총괄팀 박미숙 사원 T:031-467-6379 |

NOROO NEWS

NOROO그룹, 창립 64주년 기념식



NOROO그룹은 10월 30일, 전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안양공장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포상 및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이후 장기근속자에 대한 축하 및 기념촬영을 실시하였다.

[NOROO Group's 64th Founding Anniversary]

On October 30, Employees of NOROO Group gathered together to celebrate the company's '64th Founding Anniversary' in Anyang factory. The celebration started with an opening speech, followed by long-term employed person awards and commemorative speech. Then, employees celebrated long-term employed person and took photographs.

[NOROO그룹 'NOROO' 로고 계열사 통합 경영 강화]

NOROO그룹이 계열사명을 "NOROO" (로고)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한다. NOROO그룹은 그동안 별도의 다른 로고 체계를 사용해 오던 계열사들도 통합한 사명인 'NOROO' (로고)로 사명을 변경한다. 향후 그룹의 지주사명도 변경될 예정이다.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의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해외사업과 더불어 현지화를 추진해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글로벌 기업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경영을 통한 친환경, 자연친화적, 기능성 제품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제품 개발로 고객만족 및 고부가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회사명이 변경된 계열사는

- (주)씨케이 - (주)노루케미칼

- 대한코일코팅(주) - (주)노루코일코팅

- 디알씨(주) - (주)노루앤알씨

- (주)대연 - (주)노루로지넷

[NOROO Group Uniting the Affiliated Companies under the "NOROO" Logo]

NOROO Group is uniting affiliated companies under the "NOROO" logo to start a full-scale globalization. NOROO Group's affiliated companies will change their names under the "NOROO" logo, and the name of the holding company is planned to be changed in the future.

By uniting the Group's logo, NOROO plans to expand its overseas business in China, Vietnam, Saudi and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e Group will start a full-scale globalization by promoting localization. Lastly, the Group will develop eco-friendly and functional products as a part of its Green Management, satisfying the need of the customers and developing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companies with new names:

▶CK Co., Ltd. - NOROO Chemicals Co., Ltd.

▶Daihan Coil Coatings., Co., Ltd. - NOROO Coil Coatings Co., Ltd

▶DRC Co., Ltd. - NOROO NRC Co., Ltd.

▶Dai Yon Co., Ltd. - NOROO Loginet Co., Ltd.

[NOROO그룹, 정기고사]

NOROO그룹의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하는 2009년 11월 25일 정기고사를 안양공장 본관 2층에서 실시하였다. 안양공장 이외의 공장에서는 고사진행 절차에 따라 안양공장과 동일한 시간에 고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노루페인트 칠서공장, 포승공장, DBC(주) 천안공장, (주)DAC 화성공장, (주)노루코일코팅 포항공장, (주)노루케미칼 안산공장은 같은 시간에 자체적으로 고사를 실시하였다.

[NOROO Group's Regular Offering]

On November 25, NOROO Group held a regular offering event in the 2nd floor of the main office in Anyang factory to wish for the company's long-term growth and to avoid disasters. Other factories held identical offering events at the same time with Anyang factory and following factories performed their own offering events: Chilseo and Poseung factory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Cheonan factory of Daihan Bee Chemical

Co., Ltd., Hwasung factory of Daihan Automotinal Paint(Korea) Co., Ltd., Pohang factory of NOROO Coil Coatings Co., Ltd. and Ansan factory of NOROO Chemicals Co., Ltd.

【NOROO그룹, 녹색경영 교육】

세계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산업사회에서는 서로 배치되는 의미인 것 같으나, 두 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NOROO그룹은 “아름다운 세상, 깨끗한 환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오래전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념을 통해 이미 녹색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노루페인트 구성원 모두가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녹색경영혁신 및 실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30일까지 과장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녹색경영(성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주)DPI홀딩스는 과장급 이상 전원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같은 교육을 실시했고 2010년 1월에는 대리급 이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OROO Group's Green Management Education】

The world is now paying attention to “Green Growth” concept, a new way to manage a company to reduce carbon dioxide, the cause of global warming. The “Green Growth” concept covers both the environment (Green) and Growth. Usually, these concepts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industrial society, but they are put together as a new growth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Under a catch phrase of a “Beautiful World, Clean Environment”, NOROO Group has long practiced Green Growth management to protect our precious environment. Following the company's step, every employee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understood the need to learn about the “Green Growth” concept. Therefore, the company held an online education for Green Management & Growth between November 1st and 30th, educating managers and higher. Furthermore, DPI Holdings Co., Ltd. instituted same program for managers and higher officers on December and plans to train assistant managers and other regular employees in January 2010.

【불우이웃돕기 온라인 자선 바자회 오픈】



지난 11월 1일, 노루가족 자선바자회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했다. 회사와 노조, 양호재단이 함께 활동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평화보육원의 아이들의 정서안정교육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노루가족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NOROO그룹은 매년 연말연시에 (주)노루페인트, 관계사 임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재사용과 나눔 실천의 장이 될 이번 바자회는 12월 20일까지 운영되었다.

【Opening an Online Charity Sale to Help Unfortunate Neighbors】

On November 1, NOROO families opened an online charity site to help unfortunate neighbors. The charity sale was held especially for children of Peanghwa orphanage as part of public contribution activities by the NOROO, its labor union and Yangho Foundation. The site is operated temporarily every end of the year to the family members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and affiliated companies. For this year, the site will be opened until December 20th.

【2010년 NOROO그룹 임원 승진】

NOROO그룹은 2010년 1월 1일부로 NOROO그룹 임원승진을 단행했다.

(주)디피아이홀딩스 사장 최광균 대표이사 부회장에 임명.

상무 송윤빈, 이주길 전무에 임명.

이사 이상철 상무에 임명.

(주)노루페인트 상무 장형석 전무에 임명.

부장 우경현, 이경재, 정성현,

이명희 이사에 임명.

(주)루케미칼 대표이사 상무 강석규 대표이사 전무에 임명.

(주)DAC 상무 백성빈 전무에 임명.

이사 신동훈 상무에 임명.

【Director Promotion of NOROO Group in 2010】

NOROO Group promoted following new directors in January 1st 2010.

DPI Holdings Co., Ltd.

CEO Choi, Kwang-kyun, Promoted as a vice chair-



man & CEO

Song, Yun-bin, a managing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senior managing director.

Lee, Ju-kil, a managing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senior managing director.

Lee, Sang-chul, a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managing director.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Chang, Hyoung-seok, a managing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senior managing director.

Woo, Kyung-hyun, a general manager, is now promoted as a director.

Lee, Kyung-jae, a general manager, is now promoted as a director.

Chong, Sung-hyun, a general manager, is now promoted as a director.

Lee, Myung-hee, a general manager, is now promoted as a director.

NOROO Chemicals Co., Ltd.

Kang, Suk-kyu, a CEO and a managing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CEO and a senior managing director.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Baek, Sung-been, a managing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senior managing director.

Shin, Dong-hoon, a director, is now promoted as a managing director.

(주)노루페인트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품질경쟁력 8년 연속(9년차) 우수기업 선정】

2009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주)노루페인트가 8년



연속 선정되어 2009년 11월 10일 선정서 및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가 주관하는 “2009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시상식이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열렸다. 수상 기업들은 올 한 해 동안 품질경영을 통한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심사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74명이 참여해 품질시스템 전략과 관리시스템, 기업문화 및 인재육성 등 13개 항목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1,0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남인석 기술표준원장은 “선정 기업들은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lected as the Best Company with Quality Competitiveness for 8 Consecutive Years (the 9th year)]

On November 10,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has been selected as the best company with quality competitiveness for 8 consecutive years, receiving a certificate and award. Held in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located in Gwancheon, the “2009 Best Company with Quality Competitiveness” awarding event was sponsored b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President Nam, In-seok) and managed by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President Choi, Gap-hong). The awarded companies obtained excellent results in the category of product quality, cost cut, produc-

tivity and service quality. For the awards, 74 experts from academ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examined each company in 13 categories such as quality and management system, corporate culture and employee education. The companies were evaluated based on submitted documents and job site examination on the basis of 1000 points.

Nam, In-seok, a president of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comments that “awarded companies have continually improved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helping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 칠서공장 노루봉사대 4/4분기 활동 】



칠서공장 ‘노루봉사대’에서는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31일, 4/4분기 봉사 활동을 조기에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가출소년, 소녀가장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부양하는 시설인 ‘나눔의 집’ 외벽 칠해주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 사회 연구소’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동참을 하였으며, 조영규 함안군수 내외도 과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몸으로 체험하는 활동이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가 되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해 주었으며 지역사회에 ㈜노루페인트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4th Quarter Volunteering Activity of Chilseo Factory NOROO Volunteers 】

On October 31, the Chilseo factory NOROO volunteers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performed an early 4th quarter volunteering activity due to approaching cold winter. The volunteers painted exterior walls of the “House of Sharing” located in Haman-gun, Gyeongsangnam-do, which is a home for elders (over 65 years old without family), runaway girls and teen heads of household. In addition, volunteers from a corporation aggregate, “Research Center for Living

Together”, participated in the activity, and Jo ,Yeong-gyu, a county governor, joined together along with his wife, bringing fruits and supporting the activity. He commented that the “true volunteering activity is the one carried out with your own body”. Through the activity,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heightened its image as a socially responsible company.

【 무역의 날 수출탑 수상 】



제46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노루페인트, (주)DAC, DBC(주), ㈜노루케미칼이 이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30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인사가 참석했다. ㈜노루페인트는 이번 수출탑을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품질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노루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상 내용

1. ㈜노루페인트 : 2천만불 수출탑
2. (주)DAC : 1천만불 수출탑
3. DBC(주) : 5백만불 수출탑
4. ㈜노루케미칼 : 1백만불 수출탑

【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Receiving the Tower of Export Award 】

On the 46th Annual Trade Day,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Daihan Bee Chemical Co., Ltd. and NOROO Chemicals Co., Ltd. received the Tower of Export Award for 20 million USD. The awarding event was held on November 30th in the Convention Hall of Samsung COEX, manag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ipated in the event, including a president, Lee Myung Bak. NOROO Paint & Coatings announced that based on the Tower of Export Award, the company will heighten its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and expand its share in the global market.

Awards History

1.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 Tower of

Export Award for 20 million USD

2.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 Tower of Export Award for 10 million USD

3. Daihan Bee Chemical Co., Ltd. : Tower of Export Award for 5 million USD

4. NOROO Chemicals Co., Ltd. : Tower of Export Award for 1 million USD

【 노동조합, 사랑의 손길 정성 모으기 운동 】

㈜노루페인트 노동조합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랑의 손길’ 정성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사랑의 정성 모으기는 지난 12월 7일~1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모인 성금은 12월 평화보육원 방문 시 성금 및 생필품지원 및 양호재단 성금지원에 사용하였다. 또한 회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노루인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 Labor Union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Performing a Charity Event 】

The labor union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held a charity event titled the “Loving Hand” to raise the fund for unfortunate neighbors. The event was held for two weeks between December 7th and 18th, and the raised funds were given to Peanghwa orphanage and Yangho Foundation. In addition, the company plans to award gifts to excellent NOROO employees for their services.

【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 】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 시군 등 참여기관과 함께 가정 및 직장에 보관중인 폐휴대폰을 집중 수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 수익금으로는 불우 이웃돕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범 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NOROO그룹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참하고자 수거함을 설치하여 휴대폰 수거에 동참하여 모인 폐휴대폰은 경기도청에 전달하였다.

【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Collecting Old Mobile Phones 】

The local government of Gyeonggi-do is collecting old mobiles phones to protect environment and raise funds to help unfortunate neighbors. The campaign is carried out by local institutions,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NOROO Group also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by setting up old mobile phone collection bin.

【 2009년 우수특약점 대표자(VIP) 해외 연수 실시 】



㈜노루페인트 자보사업부는 감성마케팅의 일환으로 2009년 우수특약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국 여행(골프대회)을 실시하였다.

지난 10월7일~10일(4일간), 진행된 중국 여행 기간에 특약점 대표자는 산둥성 박물관, 표돌천 공원 등에 대한 관광과 특약점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친선 골프 대회(노자회)를 실시하였다. 골프 우승자(김석수 사장)와 메달리스트(박재욱 사장)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에 실시되는 노자회 모임에서 포상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루페인트 건축사업부도 2009년 11월19일~11월21일,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 지역은 중국 상해로 NOROO그룹 상해 법인공장, 상해대형 유통매장, 상해코팅참관, 명소견학청황묘고거, 예원, 호심정, 남경로 등등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우수특약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Overseas Training Session for the Representative of 2009 Distinguished Special Agencies (VIP) 】

The Department of Car Repair Paint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rewarded representatives of 2009 distinguished special agencies with a China travel ticket (Gold Tournament) as a part of the company's marketing event. The event was held between October 7th and 10th for four days, and the representatives of distinguished special agencies visited Shandong Museum and Bao Tu Quan Park and participated in a golf tournament. The winner (President Kim, Seok-su) and a medalist (President Park, Jae-uk) will be reward-

ed in the after events.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held an overseas training session for distinguished special agencies for two days between November 19th and 21st of 2009. During the training, the participants visited many locations in Shanghai, China including NOROO Group's Shanghai Corporation plant, Shanghai large store, Shanghai China Coat exhibition and other tourist attractions (Cheng Huang Miao, Yu Yuan, Hu Xing Ting, Nanjing Road).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plans to hold the event on regular basis for distinguished special agencies.

—
㈜아이피케이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 KORMARINE 2009 전시회 참가 】

지난 10월 21일~24일, 부산 전시·컨벤션 센터인 벅스코에서는 제16회 국제 조선 기자재 및 해양 장비전인 "KORMARINE 2009"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KORMARINE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 4대 조선 해양 전시회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아이피케이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이 전시회에 참가한 이래 올해로 연속 5회째 참가하게 되었다.

㈜아이피케이에서는 전략마케팅팀과 영업팀을 주축으로 한 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KORMARINE 2009"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번 테마는 경제적이고 생태계에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은 'eco2 friendly solutions'를 테마로 하였다. 이러한 컨셉을 잘 나타내고 있는 Intersleek을 상징하는 범고래의 형상으로 부스를 디자인하여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NN과 MBC에서도 당사의 부스를 뉴스 화면에 담아내었으며, 네덜란드 대사도 당사의 부스를 방문하였다. 또한 ㈜아이피케이 부스는 전시회 기간 내내 가장 많은 고객들로 붐비는 부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었으며, 둘째 날인 22일에는 2005년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부산 해운대누리마루에서 Intersleek 900과 Intershield



300 제품을 주제로 한 고객세미나가 열렸다.

셋째 날인 23일 저녁에는 Free Beer Night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24일에는 ㈜아이피케이 임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한 Family day 행사가 열려 가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끝으로 "KORMARINE 2009" 전시회는 2011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Participating in KORMARINE 2009 Exhibition 】

The "KORMARINE 2009" Exhibition was held between October 21st and 24th in Bexco convention center in Busan. The exhibition is becoming one of the four major international marine exhibitions and is held every other year.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for a first time in 2001, participating in the event for 5 consecutive times by this year. The company organized a task force team from members of strategic marketing and sales teams, successfully planning and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The theme of the exhibition was 'eco2 friendly solutions', and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designed its booth in a killer whale shape symbolizing its intersleek concept. KNN and MBC reported the company's booth on their news, and an ambassador from Netherland visited the booth as well. In the end, the company's booth was one of the most visited booths in the exhibition.

The "KORMARINE 2009" exhibition started with an opening ceremony on the 21st, and a seminar was held on the second day in Nurimaru APEC House in Haeundae Busan, presenting Intersleek 900 and Intershield 300 products. On the third day, the employees of International Paint (Korea) Co., Ltd. enjoyed a Free Beer Night event. On the 24th, a family day event was held for the family members of the company's employees.

【 바른외국기업상 제조업부문 최우수상 수상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온 '바른외국기업상'을 올해는 ㈜아이피케이가 수



상하였다. 전반적으로 ㈜아이피케이는 윤리적인 기업 활동과 국내경제 공헌, 환경경영 주력 등 다국적기업으로서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부각되어 제조업 부문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사)경제정의연구소는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향후에도 우수 기업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 Received First Prize in the Best Foreign Company Award (Manufacturing Category) 】

IPK Co., Ltd. has received the first prize in the 'Best Foreign Company Award', an award given by KEJI of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ince 2001. KEJI announced that IPK has won the best prize in the manufacturing category due to the company's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domestic economy as well as its pursuit of ethical business activities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The awarding event was held in the event hall in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d IPK promised that, as a best foreign company, it will continue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economy.

㈜노루로지넷 NOROO Loginet Co., Ltd.

【 포워딩 시스템(DY Forwarding System)도입 】

2009년 12월 중순 도입되는 Forwarding System은 Booking 접수에서부터 세관신고, Accounting에 이르기 까지 Forwarding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표준업무 절차 설정 및 EDI (Electronic Data Interface)연동, Paperless기능, 다차원 실적 Report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수출, 입 업무운영을 하기 위한 Global Web Base Solution 이다.

【 Introducing DY Forwarding System 】

The Forward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middle of December, covering every part of forwarding system including booking, Custom declaration and accounting. It is a global web based solution improving work efficiency and supporting export and import procedure through its standard work procedure, EDI linkage, paperless function and multi-dimensional earnings report.

【 홍영범 대리, 적십자헌혈유공 은장 수여 】

시스템사업부에 근무하는 홍영범 대리가 2009년 11



월 27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운동에 기여한 공으로 적십자헌혈유공 은장을 받았다.

홍영범 대리는 20세 때부터 매년 2회 정도의 헌혈을 하여 현재 31회의 헌혈을 하였다.

【 Hong , Yeom-beom, an Assistant Manager, Rewarded with a Silver Award for Blood Donations from the Red Cro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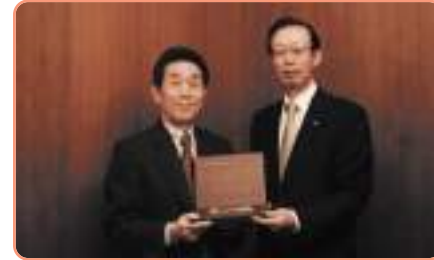
Hong, Yeom-beom is an assistant manager from the department of system. On the morning of November 27, he has been awarded with a silver award for blood donations from the Red Cross. Since the age of 20, he has made two blood donations every year, totaling 31 blood donations to date and plans to continually donate blood in the future.

㈜DAC & 대한비케미칼㈜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 Daihan Bee Chemical Co., Ltd.

【 강신원 부회장 공로패증정 】

2009년 12월 30일, 신라호텔에서 ㈜DAC 및 대한비케미칼㈜ 강신원 부회장 퇴임을 맞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환영회 회장, 최광균 부회장, 양정모 사장, 김수경 사장, 장호 사장, 조영호 사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강신원 부회장은 1999년 1월 1일, 대한비케미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년 12월에는 천안공장 설립 완공과 더불어



안정화에 힘썼다. 2009년 1월 1일부로 ㈜DAC와 대한비케미칼㈜를 겸직하는 부회장님으로 취임하였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DAC 및 대한비케미칼㈜의 고속성장과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 Presenting Appreciation Plaque to Vice-Chairman Kang, Shin-won 】

On December 30,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and Daihan Bee Chemical Co., Ltd.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to Kang, Shin-won, the vice-chairman, in Hotel Shilla for his contribution and efforts. Many top executives, including the chairman Han, Young-jae, a vice-chairman Choi, Kwang-kyun as well as presidents Yang, Jeong-mo, Kim, Soo-kyong, Jang, Ho and Jo, Yeong-ho,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As of January 1st 1999, Kang, Shin-won was inaugurated as the CEO of Daihan Bee Chemical Co., Ltd. and has put his efforts into the completion and stabilization of Cheonan factory in December 2006. On January 1st of 2009, he was inaugurated as a vice-chairman of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and Daihan Bee Chemical Co., Ltd. Since then, even with many environmental difficulties, he helped the fast growth and the globalization of Daihan Automotive Coatings Co., Ltd. and Daihan Bee Chemical Co., Ltd. ♣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자!

Leading Changes through Imagination and Creativity!

노루가족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 금리, 유가와 소비침체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 환율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중국 내수경기의 진작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루가족이 힘을 합쳐 사업목표에 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원화 가치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금리의 상승과 함께 국내외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내수 회복

은 지난해에 이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경기부양책의 지속적 실시로 내수 확장 추세와 수출 호전으로 새해에 9%를 상회하는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대 중국 수출 국가들의 경제에 보탬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는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NOROO그룹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격변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개의 큰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도료, 수지 사업의 기술 개발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해외시장 활동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미래 신사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인 기술개발력 강화를 위해 연구소를 중앙연구소 체제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술개발 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해외시장 활동 확대를 위한 현지 기술개발력 강화와 로컬업체와의 자본 제휴 등을 통한 기존 사업망 확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인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세계 우수 연구소들과의 공동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에 더하여 그룹의 장기 발전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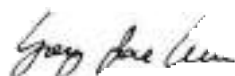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글로벌 노루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의 경영지표를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자'로 제안하였습니다. 장래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NOROO그룹 건설을 위해 회사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틀의 큰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리드해 나아가는 당당한 글로벌 노루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전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다 하는 말이 있듯이, 회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전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발전적인 노사 문화 창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목 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4일 회장 한영재



Dear family members of NOROO. Let's celebrate the birth of 2010. Thank you for your efforts over the last year, and may health and happiness greet you each day of the New Year.

In the last year, the global downturn led to unstable currency, interest rate and high oil price. Everything seemed uncertain at the moment, but thankfully the government increased spending to boost economy and the currency also stabilized. Furthermore, China's domestic condition improved, leading

to positiv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second half. Despite difficulties, I'm glad that NOROO family members put all their effort to meet our business goal.

In 2010, uncertain business condition is expected to be continued with a hiking raw material price and higher interests. In addition, economic recovery in the developed countries is expected to be sluggish as in the last year. However, China will continue its economic stimulus plan to expand domestic consumption and increase exports, leading to expected growth rate of 9% in 2010. In turn, Korea and other exporting countries to China will benefit. Therefore, we must continually strengthen our competitiveness in exports and perform cost innovation.

NOROO Group will take an advantage of the unstable economy, and we will take a new leap towards a better future. To do that, first we will secure world-class technology in our paints and resin businesses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our overseas business. Second, we will develop a new composite material essentially needed in the new growth market based on our core technology.

To secure world-class technology, we plan to centralize our R&D center and expand our overseas sales network by hiring local R&D personnel, through M&A, etc.

In addition, we will collaborate with world renowned R&D centers and universities to develop a new composite material, which will become the new growth engine and secure the long-term growth of NOROO Group.

Our employees need to put constant effort into self-improvement to meet our goal. Each employee should improve job performance and continuously heighten foreign language skill to become a global NOROO employee.

I ask you to lead the changes through your imagination and creativity. Your effort is necessary for our company to become the best company in the world no matter what the business environment.

Finally, despite external difficulties, I thank our labor union leader Kim, Yeong-mok, other labor leaders and the members of the union for their endless effort to create a better labor and management culture. Thank you. ♣

January 4th, 2010 President Han, Young-jae

2010 NOROO그룹 녹색경영 선포식 및 시무식

2010 NOROO GROUP Green Management Declaration
and New Year's Kick-off Meeting
"Become a global NOROO through Green Growth"

녹색경영의 힘으로
글로벌 노루를 향해
힘차게 뛰자

2010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랑이 해(庚寅年)의 힘찬 기상을 말해주듯 매서운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친 2010년 1월 4일, 안양 NOROO그룹 본사에서는 ‘2010 NOROO그룹 녹색경영 선포식 및 시무식’이 열렸다. 여타 기업들이 연초에 여는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시무식과는 달리, 이날 열린 NOROO그룹의 시무식은 ‘녹색경영’의 의지를 담고 특별한 의미를 아로새긴 행사로 치러졌다.

한영재 NOROO그룹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에 몰아닥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루 가족이 힘을 합해 목표에 준하는 성과를 이뤄 다행”이라는 말로 2009년을 정리한 뒤 “세계 경제의 격변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2010년 노루 그룹 임직원이 모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재 NOROO그룹 회장이 밝힌 2010년 NOROO그룹의 경영지표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변화를 리드하는 것. 이를 위해 지금의 연구소를 중앙연구소 체제로 발전시키고 해외 시장 확충을 위해 현지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세계 우수 연구소들과 공동 연구 체제를 구축해 신소재 개발에 적극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글로벌 노루’를 위해 임직원 개개인이 업무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 자기계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무식에 앞서 열린 ‘녹색경영 선포식’에는 전 지구적 과제인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공감하고 온실가스 줄이기에 NOROO그룹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후 변화에 큰 몫을 담당해온 산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전 세계의 위기에 공감하는 한편, 녹색 지구를 위한 실천에 NOROO그룹이 먼저 나서겠다는 회사 안팎의 선언이자 다짐인 셈이다.

본격적으로 식이 시작되기에 앞서 강당에 모인 노루 임직원들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다룬 동영상 시청했다. 높아지는 해수면, 녹아버린 빙하, 전 세계에 벌어지는 심각한 기상 이변 등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의 여러 구체적인 피해들을 보는 임직원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동영상 시청을 통해 바다의 위기는 곧 인간이 밭 딛고 사는 땅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지구상 모든 생명들에게 크나큰 위기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NOROO그룹의 녹색경영은 어제오늘 시작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NOROO그룹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추이를 지켜와 왔다. 공장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절감 활동, 재사용과 재활용의 장려,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연구 등의 모든 활동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NOROO그룹이 그동안 해온 노력들이다. ‘녹색경영 선포식’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이런 활동들을 더욱 크게 아우르고 전사 차원의 신념과 실천으로 승화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 NOROO그룹의 녹색경영은 그린 리더십(Green Leadership), 그린 마케팅



(Green Marketing), 그린 밸류 체인(Green Value Chain)의 3G를 통해 구현된다. 녹색경영 정보 공개, 녹색 신시장 개척, 그린 파트너십 구축 등 경영, 제품 개발, 고객 만족 등 각 부분의 영역에서 녹색 가치를 분명히 세워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시장'을 더욱 적극 개척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NOROO그룹 전체 임직원들의 '녹색 마인드'를 고취하고, 대외적으로는 '녹색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등 NOROO그룹 안팎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펼쳐갈 계획이다.

녹색경영을 통해 NOROO그룹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헤쳐나간 노루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2010년에는 '글로벌 노루'의 기틀을 다지고 친환경 녹색 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On January 4th of 2010, NOROO Group held a '2010 Green Management Declaration and a New Year's Kick-off Meeting' in Anyang main factory despite cold weather and a heavy snowfall. The meeting celebrated the year of tiger after 60 years, but unlike other companies' kick-off meetings, NOROO Group emphasized the spirit of 'Green Management'.

Han, Young-jae, a president of NOROO Group, commented in the New Year's Speech that, "I'm glad that NOROO Group met the goal in the last year despite global financial crisis. It was all possible through the efforts of every member of NOROO family. I Hope that the year 2010 will be the year of opportunity for a new leap, and we need all your supports"

The new management index for 2010, according to our president Han, Young-jae, is leading changes through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do that, NOROO Group will centralize its R&D center while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from overseas to gain market share in the global market. Furthermore, the Group plans to collaborate with global research institutes to develop new materials for the future. Our president also asked each employee to improve their work capabilities as well as their foreign language skills.

In the 'Green Management Declaration', which was held before the kick-off meeting, the members of NOROO Group agreed on the global needs to reduce greenhouse gas to protect the earth. NOROO Group, as a whole, understand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ustry and approaching threats from pollutions, promising that NOROO Group will protect environment through 'Green Management'.

With everyone gathered in an auditorium, the 'Green Management Declaration' started off with a movie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global warming, showing rising sea levels, melting glaciers and abnormal changes in the weather all over the world. Many employees were shocked, realizing that the earth and everything on it are facing enormous threats because the changes in the sea will lead to changes in the land.

The 'Green Management' isn't a new concept to NOROO Group. The Group has been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abnormal changes in the weather, and tried to reduce the global warming by saving energies in its factories, reducing greenhouse gas, encouraging employees to use recycled products



and developing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The 'Green Management Declaration' will organize these activities into a larger one, making the management as a promise and a principle of the Group. The 'Green Management' of NOROO Group is based on 3Gs, which are the 'Green Leadership', 'Green Marketing' and 'Green Value Chain'. NOROO Group plans to pioneer 'Green Market' and responds to new business environment by establishing 'Green Values' in every aspect of business including management, product develop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For example, NOROO Group will disclose green management information, find new markets for green growth and build partnerships with other green companies. In addition, NOROO Group will heighten its image as the 'Green Compan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while inspiring 'Green Mind' on every employee by practicing green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To sum it up, NOROO Group is preparing for another leap for brighter future based on the 'Green Management'. NOROO Group has overcome challenges from the last year based on the wisdom and efforts of every NOROO employee. In the year 2010, NOROO Group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Global NOROO' while raising the Group's green status to a higher level.♣



2010

New Year Greetings

어느덧 2009년도 지나가고 2010
년을 맞이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말경
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저희들을 둘러싼 환경
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전
사적인 비상경영 체제를 통한 전 노루가족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2009년의 마무리와 아울러 지난 2009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기
를 바라는 20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이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한쪽에서는 희망적인 의견으로 우리를 안도하게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조심스러운 경계론으로 우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있습
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호전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
니다. 그러나 64년을 거쳐오면서 NOROO그룹과 노루가족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들을 노루가족들의 불굴의 의지와, 헌신으로 헤쳐나가 왔
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루가족들의 의지와 헌신이야말로, 지금의 NOROO그
룹을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질다고 합니다. 지금의 불확실한 여건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
로의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충실히 노력하여 나간다면 우리 모두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노루가족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디피
아이홀딩스 연구기획실 김태형 대리

또 한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한해가 다가옴에 있어서 지나
간 것에 대한 아쉬움도있지만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그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기에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인가 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깊어지는 시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그 무엇
인가를 이루기위한 힘을 다시한번 샘솟게 할 충전의 시
간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역
량을 모아 거친 세파를 무탈하게 헤쳐 나아가 반
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
니다. (주)디피아이홀딩스 지원팀 이
범홍 부장

우리안에 내재되어 있
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100%
導出하기 위해 긍정의 힘으로 세
계를 향해 힘차게 咆哮하는 庚寅年
2010년 한 해가 되도록 전진!! 또
전진!! 합시다. DBC(주) 체코법
인장 소용호 부장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이 고산증으로 괴로울 때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못 오를지도 몰라'라는 나쁜 생각보
다는 '괜찮다. 할 만하다. 한 발짝씩만 움직이
면 되는 거야'라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
로 꼭 채워질 희망으로 맞이하는 경인년
(庚寅年)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DBC(주) 개발팀 주훈관 대리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
를 맞이하며 다시 다난했고 힘들었
던 2009년,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를 우
직하고, 똑심있게 잘 버티고 함께 고생한 생산
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2010년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에는 힘찬 호랑
이의 포효와 함께 힘찬 비상의 나래를 펼쳐 생산
팀 여러분들과 DBC(주) 직원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健康 하시기
바랍니다. DBC(주) 생산팀 정진성
차장



庚寅年 새해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새해
에는 가정에는 건강과 평화가 회
사에서는 모두 뜻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DBC**
(주) 경영지원팀 박인철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
니다. 경인년 새해는 우리 모두의 얼
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모두는 신년 포부
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곤 합니다. 큰 성과는 아
니더라도 노력의 결과는 조금씩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다짐을 항상 생
각하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
랍니다. (주)노루로지넷 물류기획팀
김지은 주임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
고 나면 늘 그렇듯 참 많은 일들이 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NOROO와 KNT가 같은 배를 탄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KNT에 파견되어 근무한 2년의 시간은 NOROO 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접근해 있어 중국회사를 통한 중국의 재발견이라고 할
까요...? 외국기업이 중국을 이해하는 것과 중국기업이 중국을 이해하는 것에는 많
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다 보
니 변화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경험할 수 없던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글
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이 중국자동차시장의 현실입니다만 그것
을 거부하지 않고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시장의 생리와 중국인들의 노력에는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시장논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중국인 각
자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정부와 기업의 리더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지만 중국시장의 거대화 중국기술의 빠른 발전은 이
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노루가족이 이룩한 많은 업적에 개
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커다란 시장에서 좀 더 커다란 경쟁자
와 상대하기 위한 준비는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도움을 주신 노루가족 여러분
께 감사드리며 더 행복한 새해를 위해 알찬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KNT 파견되는 연구2실 이동원 과장

올 한해 힘들었던 시간들
이 금년에 확고한 기틀을 다지는
기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2010년에는
그간 풀어진 마음을 다지고 미진했던 흔적
모두 지워 버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항상 준
비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 외부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
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 happy new year~~!! **칼라에**
이트(주) 김창규 사원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200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
롭게 다가오는 2010년엔 더욱더 활기차
고, 발빠른 고객 감동의 서비스로 거듭나는 칼
라메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엔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처럼..~! 때로는 흐르는 구름
처럼..!! 때로는 환하게 비추고 떨어지는 유성처
럼..!! 활기차게 뛰고, 활기차게 웃고, 활기차게
어울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HAPPY NEWYEAR ~~!!! **칼라메이트**
(주) 박미숙 주임

경인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노루가족 여러분의 꿈이 열리고 이루기
를 기원합니다. 우리 노루는 열정을 갖고 일하
는 노루인들이 있기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 한 걸
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해외에서 우
리의 사업이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이 다짐합니다. 우리 노루인은 늘 고객과 함께 할 것입니다.
친절과 지성을 가지고, 상호협조하며, 면학수양하고, 창의
성을 발휘하겠습니다. 우리 노루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올 한해는 녹색성장
의 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디파이홀딩
스 전략기획팀 김재형 부장

2010
년 경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처
럼 대범하고 강인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
니다. 지난 2009년 어느 해 보다 어려웠던 경영 환
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기에, 다가오는 2010년 역시 위
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아이피케이 역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경쟁
력 제고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친환경
적인 녹색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 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 공히 업계의 대표 명품회사가 되도록 하
겠습니다. 2010년 (주)아이피케이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공자가 홀로 서서 학문에 뜻을 세웠다는 이립의 나이를 맞이하여
30년 기업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고 선박.중방식 도로 업계의
명실상부한 선도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언제나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아이피케이 전략
마케팅팀 정유진 사원

과거 우리가 헤쳐 온 시련과
위기는 우리의 비전 달성을 위한 좋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우리들 마음 깊이 쌓여 있
습니다. 우리는 무려 64년간 축적된 엄청난 에너지
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NOROO그룹 구성원임을
잊지 말고 창업 6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시작되
는 새해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과 위기를 설레는 마음
으로 맞이하여 호랑이와 같은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움으로
헤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항상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고 따뜻한 배려
와 독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노루페인트 자금팀 이
수민 차장

사랑하는 노루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을 맞이하시며 새
해 목표는 세우셨는지요, 또 각오는 새롭게 다지셨는
지요? 언제나 새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는 가슴
벅찬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록 작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많이 어려웠어도 새 아침에는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이 가득한 시
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와 번민이 남아있는
2009년이었으나 이 또한 우리가 발전하고 향상되기 위한 귀중한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새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세우신 목표
에 대하여 후회 없는 한해를 보내시고, 2010년을 회상하실 때 정말로
보람차게 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내실 있는 한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어
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가족과 회사를 위하여 헌신적으
로 노력하시는 노루가족 여러분 올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
고 다른 누구보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
다. (주)노루코일코팅 기술1팀 박준혁 대리

우리는 2009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01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역동적으로 극복한 우리 이기에, 2010년은 우리에게 Global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64년의 역사에서 우려나오는 저력과 능력에 긍정의 힘을 더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노루인 하나하나의 힘을 모은다면 희망찬 내일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노루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파이팅! **(주)노루페인트 품질관리팀 최성환 차장**

2009년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루가족 전 직원의 양보와 단합된 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경인년에는 노루페인트가 국내는 물론 세계 페인트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자 개인 역량을 한 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다시 한 번 2010년에는 노루가족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주)노루페인트 자보마케팅팀 김순호 과장**

2010년 한 해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희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뚜껑이 열리겠지요.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 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09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랑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길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DAC 전략기획팀 백현정 사원**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오늘을 무의미하게, 때로는 아무렇게나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고, "영원히"란 말이 됩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좋은 일생을 만드는 길이며, 한번 지나간 하루는 연장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2010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선물'이며 '시간'이고 '생명'입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당신의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이 가득 찬 해로 채우시길 바라며, 새로운 도전의 향배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노루페인트 전략경영기획팀 박종필 차장**

연말연시에 노루 가족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의 뜻하는 모든 일과 꿈이 이루어지고, 노력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지나갈 올 한 해에 득채(상하이)도료유한공사의 전체 임직원들은 이 사장님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및 제도 하에 일심동체로 정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득채에서 만 7년을 근무하고 있고 지난 11월에는 회사에서 표창을 받아 영광과 행복이 가득 한해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노루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쁨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노력이 최고의 인정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득채에서 근무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개인적인 생활이나 회사 생활을 막론하고 회사 경영진들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통해 회사가 집과 같이 따뜻하고 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득채에 막 입사했을 때 업무 중 실수를 범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항상 경영진들의 포용과 주변 동료들의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노루의 이런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노루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노루인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노루와 득채(상하이)도료유한공사의 더욱 찬란한 내일을 위해 노력합시다! **득채(상하이)도료유한공사 생산지원팀장 김철만**

社訓(사훈)과 經營革新(경영혁신) Mission Statement and Management Innovation

회사의 조화나, 기념식 등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순서 중의 하나가 사훈과 사가의 제창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노트의 가장 앞부분에는 사훈과 사가가 있고 창업정신을 담은 기업이념, 국가관, 직업관, 정신자세 등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보았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우리의 정신적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회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은 경영혁신에 있어서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린 시그마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사훈과 린 시그마는 어떠한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화두는 좀 낯선 듯 하나 매우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여 “사훈과 린 시그마”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해보고자 한다.

親切(친절)과 至誠(지성) - Customer Focused

사훈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親切과 至誠”이다. 친절은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을 의미하고 지성은 지극한 정성 또는 아주 성실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친절과 지성의 대상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고객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은 외부에서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 내의 모든 사람이 고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Output의 사용자 모두가 고

객이고 Output은 제품, 반제품이기도 하며, 보고서·정보 등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드는 Output이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되기를 바란다. 린 시그마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Customer Focused’라고 말한다. 즉 고객 중심의 사상이 사훈의 “친절과 지성”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相互協助(상호협조) - Consensus

사훈에서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相互協助”이다. 상호협조는 서로 간에 힘을 보태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돕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의 목적성과 타당성이다. 즉, 목적성과 타당성에 대한 생각의 공유, 상황의 공유가 상호협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이 납기를 맞추어주고자 하는 것, 기술이 재료비를 낮추고자 하는 것 등은 영업과의 생각과 상황의 공유가 전제되기 때문이고, 영업이 채권을 줄이고 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관리재경과의 생각과 상황의 공유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생각과 상황의 공유를 린 시그마에서의 공감대의 형성 즉, Consensus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호협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각 부문이 생각과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勉學修養(면학수양) - Core Competence

사훈에서 세 번째 언급되는 것이 “勉學修養”이다. 면학은 학문에 힘쓰는 것이고 수양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에 있어서 수신에 해당되지만 기업에 있어서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적 역량강화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核心知的資產을 축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린 시그마에서는 이를 핵심역량, 즉 “Core Competence”라고 하며, 이러한 핵심역량이 기업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면학수양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건조속도가 중요한 제품의 품질요소라면 건조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이 핵심역량이고 어느 기업보다 빠른 건조속도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기업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創意性(창의성)의 發揮(발휘) - Value Up

사훈에서 네 번째 언급되는 것이 “創意性的發揮”이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은 생각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영혁신의 개선활동에는 창조적 개선과 복원적 개선이 있다. 복원적 개선은 우리가 경쟁에 뒤처져 있는 것을 따라잡기 위한 활동이며, 창조적 개선은 경쟁자가 하지 않은, 또는 하지 못하는 것은 해내는 것이다. 린 시그마에서 추구하는 “Value Up”은



기존의 가치창출활동에 더하여 보다 새롭고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경쟁자가 생각지도 못한 가치를 찾아내고 구현하여 가치를 Add Up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의성의 발휘는 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Value Up” 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迅速(신속), 進取(진취), 改善(개선) - Waste Down

사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이 “迅速, 進取, 改善”이다. 신속은 빠름을 의미하고 진취는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함을 의미하며, 개선은 고쳐서 더 좋게 만듦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속, 진취,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목적성과 방법론이다.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개발, 생산, 영업, 관리)프로세스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며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낭비(비부가가치)요소는 신속과 진취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신속 진취 개선”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은 린 시그마에서 추구하고 있는 “Waste Down”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훈의 정신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린 시그마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Lean Enterprise”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린 엔터프라이즈의 구현을 통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린 시그마 혁신활동”을 습관화하고 우리의 업무활동 속에서 린 시그마의 사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업정신인 사훈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uring the company's morning meeting or in a commemorative ceremony, employees sing together the song of the company as one of the key procedure. Furthermore, the company's notebook states our mission statement and the song of the company on the front page, emphasizing its principle, nationalism, vision and

spirit. Every employee has read these concepts at least once, and we should try to always remember them.

Our president once mentioned that “we need to get back to the basics”. The company's mission statement,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ies and lean sigma are matched with this concept. This article will teach u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mission statement and lean sigma.

Customer Focused-Kindness and Devotion

The first line of our mission statement comments about the ideas of kindness and devotion. The word ‘kindness’ means well-mannered and liking others while the word ‘devotion’ represents sincerity and wholeheartedness. Who should we pay our kindness and devotion to? The answer is our customers. The customers include not only people that buy and use our products but also include internal customers such as employees. In other words, the customers use our outputs such as products, half-finished goods as well as internal reports and information. By servicing them, we want them to feel satisfaction about our performance. The lean sigma concept terms customer oriented kindness and devotion as ‘Customer Focused’.

Consensus-Cooperation

Second, our mission statement comments about the idea of cooperation. The word ‘cooperation’ represents helping each other. To help each other, we must share the same goals and purposes. For example, we struggle to meet the deadline and cut down material cost to lower our sales cost, and our sales operation endeavors to lower receivables and inventory because it shares the same goal of improving the company's financial structure with the business management department. In the lean sigma, the idea of cooperation is represented as ‘Consensus’.

Core Competence-Knowledge Fostering

The third concept of our mission statement is knowledge fostering. The word ‘knowledge’ represents studying and researching while the word ‘fostering’ means cultivating one's body

and spirit. For individuals, these concepts mean improving your moral, but for a company, they represent strengthening employee competence. By improving employee competence, the company can sharpen its competitiveness, accumulating ‘core knowledge assets’ in a long run. In the lean sigma, the knowledge fostering concept is termed as ‘Core Competence’. Based on our core competence, we must perform innovative activities. For example, if drying time is a key feature of the product, then cutting down the drying time is core competence. By lowering the drying time, the company can secure business competitiveness.

Value Up-Showing Creativity

The fourth concept is ‘showing creativity’, representing the discovery of new ideas or concepts. In the improvement activities of management innovation concept, there are creative and restorative improvements. The restorative improvement is catching up what the company lacks compared to its competitors while the creative improvement is doing something entirely new. Similarly, the lean sigma concept pursues the idea of ‘value up’ which is finding new and fresh ideas.

Waste Down-Speed, Progress, Improvement

Finally, our mission statement comments about the ideas of speed, progress and improvement. The word ‘speed’ represents fast rate of motion, and the word ‘progress’ means going forward and completing the work while the word ‘improvement’ means to make something better. To follow these ideas, we need to cut down non-value added activities. Similarly, the lean sigma concept pursues ‘waste down’ activities to remove non-value added activities.

Through the lean sigma methodology, we plan to become a ‘Lean Enterprise’, possessing the best business competitiveness in our industry and securing a long-term sustainability. Each employee must practice lean sigma activities on a regular basis to realize our mission statement. ♣





2009 NOROO그룹 인재입문교육,
뜨겁고 치열했던 4박5일

새내기들의
갸웃이음으로
더 뜨겁게
사랑히겠습니다

2009 NOROO Group Talent
Introductory Education,
an Intensive Training for 4 days

We will Love NOROO
with the Fresh Mind of
New Employees



200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2009 NOROO그룹 인재입문교육'이 진행됐다. 4박5일 동안 청호인재개발원, 안양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입문교육에는 신입사원을 포함해 군산, 서울,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43명의 사원이 참여해 NOROO그룹의 비전을 공유하고 노루인으로서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인재입문교육의 목표는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및 비전을 세우는 한편 NOROO그룹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회사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참가자들은 4박5일의 교육을 통해 NOROO그룹의 인재로 거듭나는 보람찬 첫발을 내디뎠다.

세계 속 노루인의 확고한 비전을 세우다

교육 첫날인 12월 7일은 노루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로 채우는 시간이었다. 설렘과 기대로 연수원에 모인 참가자들은 최고 경영자의 연설로 다시 한 번 NOROO그룹에 대한 설렘으로 들떴다. 양정모 사장은 참가자들에게 경영진의 기대를 전하고, 젊은 직원들이 패기와 창의성, 진취적인 기상으로 글로벌 노루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주)노루페인트 포승공장과 (주)DAC 화성공단을 둘러보았다. 도로 업계 세계 유일의 전산 자동화 공장, 최첨단 설비와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춘 신공장은 선도 기업으로서 노루의 위상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 둘째 날은 기업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실무적인 교육들로 일정이 채워졌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해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교육. 상황에 따라, 소통해야 할 대상의 관계에 따라, 실행해야 할 목표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방법을 찾고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에 참가자들은 열의를 갖고 참여했다.

셋째 날은 오전의 '비즈니스 매너'와 오후 '산악훈련', 저녁의 팀 활동인 '비전풍등'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모았다. '비즈니스 매너'는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에티켓 등을 다뤄 유용한 정보였고 '산악훈련'은 팀원들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회사 생활의 포부와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인

'비전풍등' 또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새내기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

넷째 날에는 열정과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시너지 효과를 다룬 '열정을 통한 셀프 리더십 강의'와 NOROO그룹 김용목 노조위원장의 '신노사문화' 강의를 진행했다. 앞선 노사문화를 자랑하는 NOROO그룹답게 '신노사문화' 강의는 참가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밤 임원들이 참가자들을 격려 방문했다. 멀리서 찾아온 임원들의 열의는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임직원들은 늦게까지 허물없이 어울리며 우의를 다졌다.

드디어 4박5일 일정의 대단원인 마지막 날 아침, 참가자들은 'NOROO그룹에 화제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화기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기 작동법을 완벽하게 마친 뒤 오후에는 안양에 자리한 지적장애인 시설로 봉사활동을 나섰다. 노루에서 제공한 페인트로 장애인 시설을 말끔하게 단장해주는 뜻깊은 자리. 4박5일 계속된 일정에도 지친 기색 없이 참가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봉사의 순간을 즐겼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 안양 NOROO 본사에서 이어진 안전교육 시간.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사건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되는 내내 참가자들은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교육에 임했다.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진행된 4박5일의 모든 일정이 막을 내렸다. 인재입문교육 수료증을 받으며, 참가자들은 비로소 진짜 노루인의 되었음을 실감했다.

입사한지 3년 만에 인재입문교육에 참가한 자보기술 1팀 함은주 사원은 "새내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말로 교육 참가 소감을 밝힌다. "무척 새롭고 신선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산악훈련이 기억에 남아요. 무척 힘들긴 했지만, 서로를 도우면서 끝까지 해낼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보영업2팀 김병욱 주임에게 이번 교육은 "폭넓은 교류의 장"이었다. "입사 이후로 자보사업부에만 있어서 다른 부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드물었는데, 많은 부서의 동료들을 알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또한 노루는 수시 채용이라 입사 동기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동기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커다란 성과랄 수 있겠네요. ‘글로벌 NOROO그룹’ 글귀를 아로새긴 ‘비전풍등’의 감동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노루의 인재로 당당하게 서기 위한 시간

참가자들은 인재입문교육에 대해 ‘몰랐던 것을 일깨워준 시간’, ‘열정과 비전을 갖고 매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 교육’이라는 평들을 내렸다. 일정이 길어서 조금 버거웠다는 의견도 있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건축마케팅 최주안 사원은 다음 교육에서 재무관리나 재테크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원들의 재정 교육, 자산 관리 방법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면 어떨까요? 돈 관리에 서툰 신입사원들에게 월급관리나 재테크 등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정이나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인간관계, 업무 진행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다시 되새기고 배울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관리팀 박은주 사원은 “많은 사람을 사귄 수 있어 좋았던 자

리”로 이번 교육을 평가한다.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보다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성 참가자는 딱 두 명뿐이어서 남자 직원들이 참 잘해주더군요. 프로그램들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되었고, 중간 중간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도 2, 3년 차 직원들에게도 이번 인재입문교육은 특별한 시간이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이자 진짜 배기 노루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신무장의 기회가 된 것. 노루 구석구석, 이들이 내뿜는 열정과 희망이 솟아나기를 기대해본다.

NOROO Group held a ‘2009 NOROO Group Talent Introductory Education’ between December 7 and 11 2009. For 4 days, Forty three associate-level employees including new employees from Gunsan, Seoul, Pohang and other areas gathered in Chungho Academy and Anyang main office to share the vision of NOROO Group. Through the education, the employees could learn about the Group’s management mission and values which are required for every NOROO employee to establish their own vision and values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Group’s business and to be proud of their work and the company.

Establishing a Firm Vision of NOROO Employees of the World

On December 7, the first day of education, the employees learned about pride and self-esteem of NOROO Group. They were very excited to be in the academy, but they became even more excited to hear the voice of the Yang Jeong-mo, who is the president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In the speech, he spoke about the management’s high expectation for employees, asking them to be the future leaders of the global NOROO Group through their vigor, creativity and enterprising spirits. After the speech, the employees visited Posung plant of NOROO Paint & Coatings Co., Ltd. and Hwasung industrial complex of DAC. The new plant is the world’s only automated plant for the paint industry equipped with high-tech machines and managed with a flawless quality management system, teaching employees about the NOROO’s global leading status.

Beginning from the second day, the new employees learned about the actual work processes that are required to be a part of NOROO Group. The ‘business communication’ education studies an effective business communication method with a goal to raise individual’s communication capability for various situations and purposes. The employees listened to the education with enthusiasm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the morning of the third day, the employees learned about a ‘business manner’ to improve basic business etiquettes. Then, they participated in the ‘mountain training’, experiencing team cooperation, which are essential to overcome crisis. Finally, the employees flew individual ‘vision lamps’ to remind themselves about the goals and determinations.



Chance to Prepare for Tomorrow with the Fresh Mind of New Employees

On the fourth day, the employees listened to a lecture about 'self-leadership through passion', which explains about a happiness synergy effect between passion and confidence followed by a speech by Kim Yong-mok, the leader of NOROO Group's labor union, with a main theme on the Group's 'new labor culture'. NOROO Group is well known for its advanced labor relationship, and the speech found an echo in everybody's heart. Later that night, the Group's managing directors came from far away to cheer up employees, and the employees were deeply touched by the visit. They had a great time together through the late evening.

On the morning of the last day, the employees participated in fire extinguisher training with a determination that 'there is no fire in NOROO Group'. In the afternoon, they visited a facility for mentally disabled in Anyang, painting the facility like new with paints provided from NOROO Group. Although the four day schedule was quite challenging, the employees were happy to participate in the volunteering event.

After that, the employees visited the NOROO's main office in Anyang to have a safety education, paying full attention to avoid possible accidents in work zones. The safety education was the last part of the 4 day session, and the employees finally received certificates of NOROO Group Talent Introductory Education, becoming the true NOROO employees.

Ham, Eun-ju, a staff member from Car Repair Paint Technology Team 1, stayed in the company for about 3 years. She comments that she felt like a new employee by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

"I felt fresh and new. I especially liked mountain training. It was tough to do, but our team did a great job b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the end, it was a fulfilling experience, and it will help me throughout my work life"

Kim, Byung-wook, an assistant manager from the department of Car Repair Paint comments that the education was a chance to improve work relationship.

'Since joining the company, I stayed in the department of Car Repair Paint and rarely meet people from other departments. However, I was able to meet many new people through the education.



In addition, NOROO Group does not hire employees on a regular basis, so I didn't have any co-workers hired at the same time. However, I built a great relationship with other employees from the education, and we plan to hold a regular meeting from now on.

I will never forget the 'vision lamp' flying experience in which I inscribed the word 'global NOROO Group'."



Time to Stand Firmly as a Talented NOROO Employee

The employees commented that the education taught them various new ideas while awakening vigor and vision for the job. However, there was also an opinion that the schedule was too long or that the schedule wasn't well planned out. Choi, Ju-an, a staff member from Architecture Marketing, requested to include either financial managements or investment techniques as a part of the next education.

"How about including financial managements or investments techniques for employees in the next education? New employees aren't good at managing their salary, so those educations will certainly help them. As for this education, it had a great overall schedule and programs. I learned about basic business etiquettes and relationships as well as techniques that are essential in the job sites."

Park, Eun-ju, a staff member from the management team, commented that she was able to meet many great people from the education.

"I met more people from the education than from the work. There were only two females in the education, so male employees took great care of us. The education program was fun, and I liked games during th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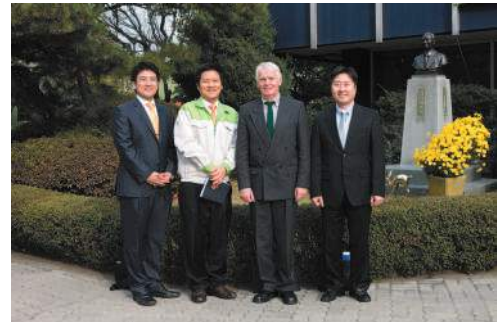
For every employee including both new and those with 2 to 3 years of experiences had a special time in the education, reminding them about the moment that they first joined the company as well as strengthening spirits for better job performance. NOROO Group has a great expectation from their vigor and hope.



KIST-EU PROJECT

노루 유럽 진출의 발판, 키스트 이류 프로젝트(KIST-EU Project)

“유럽 선진 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노루의 기틀을 다진다.”



KIST-EU Project,
Paving the Way of NOROO to Europe
“Laying a foundation for the
globaliz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European technology”

유럽을 향한 노루의 발걸음이 힘차다. ㈜디피아이홀딩스 및 ㈜노루페인트코팅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지식연구그룹(KIST Europe Knowledge Research Group)과 손을 잡고 추진 중인 ‘NOROO 그룹 DPI Holdings 친환경 첨단기술 발굴 및 글로벌 사업화 추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힘찬 여정을 시작했다.

소통과 교육, 연구의 3박자로 성공을 일군다

노루의 ‘글로벌 사업화’를 목표로 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기술 향상과 신수종 사업 추진을 위해 가동되는 이 프로젝트는 몇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 8월 본격 가동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중간 진행 상황 결과 보고, 2010년 11월 1차 프로젝트 업무 종료를 목표로 힘차게 뛰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유럽을 이으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키스트 유럽의 인력의 주기적인 방문 및 협의를 통해 NOROO그룹의 주요 요구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해도를 높여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유럽 내 기술 도입 및 C&D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NOROO그룹 내의 ㈜디피아이 홀딩스의 담당 TFT도 키스트 유럽의 본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과제 진행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은 당 연구소의 이익수 실장, 심증업 수석연구원, NRP 에너지사업팀 정성현 부장, 건축기술사업 최

보호 부장, 자동차보수기술사업부 노승대 차장, 방수재기술사업부 함영재 차장, 공업기술사업부 고정우 과장, 그리고 김동환 ㈜디피아이 홀딩스 전략기획2팀장으로, 저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환 차장(㈜디피아이홀딩스, 전략기획2팀장)은 “노루의 세계 진출이라는 전제 아래, 유럽 기술 거점화 유럽 기술 거점 및 C&D를 위한 1단계 프로젝트로서, 유럽진출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현재 그룹차원 전략의 큰 줄기는 기존 사업의 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NOROO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새로운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 및 추진하는 것입니다. KIST-EU와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연구 조사와 교육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 그룹의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유럽을 넘어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계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루는 여러 다양한 성과들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노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기술 보유 회사들과 전략적으로 업무 제휴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FT member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 내 노루의 전진 기지 역할도 충실히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을 하기에 앞서 유럽 시장을 알기 위한 사



전 조사의 의미도 큼니다. 지금까지 노루에게 멀게만 느껴졌고, 넘보지 못할 산으로 여겨졌던 유럽 시장과 유럽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단계로 프로젝트의 인력과 내용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경제 중심인 유럽 기술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한 과정으로 지난 10월 유럽의 코팅 전문가가 안양 NOROO 본사를 찾았다. 유럽 시장 중에서도 특히 노루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 OEM보수 도료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유럽 내 시장과 기술 현황 등에 대한 다채롭고 심도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다.

“유럽 내 시장과 기술 현황, 독일 시장과 기술 현황을 듣는 한편 유럽 자동차 OEM 도료 시장을 소개 받았고, 유럽의 환경규제 정책 중 하나인 REACH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의 가장 값진 성과는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소개에 그치지 않고, 기술진들끼리의 실무적인 기술 교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팅을 통해 기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죠.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통과 교육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글로벌 노루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TFT member들의 다짐처럼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노루의 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NOROO is taking a bold step towards Europe. DPI Holdings and NOROO Paint & Coatings are working together with KIST Europe Knowledge Research Group to start the project titled ‘NOROO Group DPI Holdings Environment-Friendly & Cutting-Edge Technology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Paving the Way to Success through Communication, Education and Research

After months of preparation, the project began in August 2009 with a single goal of ‘business globalization’ of NOROO Group. As a first step, we’ve introduced advanced technology from Europe to improve our technology and to secure new business items. A mid-term progress report will be released in February 2010, and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November 2010.

For the project to be successful, we are having an active communication with key project staffs in Korea and Europe. By scheduling regular visits and consultations from KIST Europe, we are measuring and analyzing business conditions of NOROO Group to raise our technical expertise. Now, we are internally training our staffs while acquiring new technologies from Europe and strengthening the basis of C&D. In addition, NOROO Holdings task force team is cooperating with project staffs from KIST Europe to solve problems.

The project members are made up of experts from different fields including Lee, Ik-su, a general manager of our R&D Center, Sim, Jeung-yeop, a research engineer, Jung, Seong-heon, a general manager of energy business team, Choi, Bo-ho, a general manager of architecture technology division, Roh, Seung-dae, a deputy gen-



eral manager of car maintenance technology division, Ham, Yeong-jae, a deputy general manager of waterproof technology division, Go, Jeong-woo, a manager of engineering technology division and Kim, Dong-hwan, a team leader of NOROO Holdings strategic planning team 2.

Kim, Dong-hwan from NOROO Holdings explains that "Under the premise that NOROO will penetrate the world market, the project is at its first phase of introducing C&D and technology from Europe."

"The main strategy is to diversify market for our businesses while finding a new business that will be the future growth engine of NOROO Group. With the project with KIST-EU and through extensive research and training, we will better understand the European market. Furthermore, we will improve our technical expertise by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y, and it will be the first step of finding the new growth engine."

Opportunity to Become Active on not only in Europe but on a Worldwide Scale

NOROO is expecting many outcomes from the project. First, NOROO will advance its core technology by adopting new technologies, working on strategic collaborations with companies possessing leading technologies. Furthermore, the TFT members believe that NOROO can lay a foundation for a European base through this pro-

ject.

"Through the project, we can actually learn about the European market before actually entering it. Europe is a new center of world economy, and it is a relatively new market for NOROO. Therefore, we will use studies and personnel from the project to better understand the market and its technology."

As a part of the project, a coating specialist from the Europe visited NOROO's Anyang main office in last October. The training was scheduled to better understand OEM car repair paint, which is the main focus of NOROO in the European market.

"We've had overviews about Europe and Germany regarding the countries' market conditions and technologies. In addition, we've also learned about OEM car repair paint market in Europe as well as about 'REACH' which is an environmental restriction policy in Europe. The most valuable outcome from the training is that we had technology exchanges between technical teams. Through the meeting, we now better understand technologies. By having more communications and training from the project, we will lay a foundation for the globalization of NOROO."

As the TFT members' pledges, we have a high expectation that the project will help NOROO to become active on not only in Europe but on a worldwide scale. ♣



“치열한 열정으로 무장한 영업의 달인들”

(주)노루 페인트 건축도료사업부 서울 지점

영업에서 가장 크고 치열한 시장은 서울이다. 8명의 최정예 직원들이 서울시 전체와 일산, 파주, 문산,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경기도 북부를 포괄하며 중형무진 활약하고 있는 건축도료사업부 서울 지점. 건축도료사업 분야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는 보람과 자긍심으로 뚝뚝 땀을 흘려 가장 크고 가장 치열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영업의 달인’들을 만나보았다.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뛴다

건축도로사업부 서울 지점이 문을 연 것은 2006년 1월. 그전까지 안양 본사에 있던 서울 지점은 '서울 고객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그룹의 결단에 따라 서울로 옮겨왔다. 서울과 경기 북부를 잇는 큰 시장을 더욱 적극 개척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서울 지점은 문을 연지 3년 동안 기존 업체 관리와 신규 업체 개척 두 분야에서 모두 관촬은 성적을 거두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 지점을 이끌고 있는 이경철 지점장은 '영업의 달인들'이라는 말로 서울 지점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노루의 영업직원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히 서울 지점의 직원들은 건축물 도로에 있어서 최고의 영업 달인들입니다. 건축도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 관리에 있어서도 진실과 성실함으로 대하고 있죠. 또한 건축도로사업부 안에서 가장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20여 개 특약점을 담당하며 기존특약점 관리와 함께 신규 대리점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흥기 과장은 영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늘 가슴에 새기려 노력한다. "페인트 한 통 더 팔고 수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은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일입니다. 영업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도리를 지키고 거래처 분들과 진심으로 만난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2010년에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원칙도 지키고 판매 목적도 달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점 식구들은 서울 지점만의 특징점으로 '가족 같은 친화력, 탄탄한 팀워크, 강한 체력에 깃든 강한 정신력'을 꼽는다. 유일한 여성 직원인 최명희 대리는 '서로의 어려움과 모자람을 알아서 채워주는 동료들'이라는 말로 신뢰를 보낸다. "흔히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느슨하고 나태한 느낌을 떠올리기 쉽지만, 저희 팀원들은 말은 바 임무에 있어서는 아주 치열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힘든 부분을 채워주려 노력하지요. 말없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족같은 분위기 아닐까요?"

서로 다독이며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다

2009년은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해였지만, 서울 지점은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해로 만들었다. 입사 이래 서울 지점에서만 근무한 9년 차 강호진 대리는 "모두들 다독이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해"로 2009년을 기억한다. "올해는 참 힘든 해였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힘든 일이 바로 영업이라는 것을 절감한 해였죠. 영업의 특성상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서로에게 날카로워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팀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건뎌며 올해 기틀을 마련했으니, 내년엔 더욱 잘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갓 결혼한 새신랑 김윤곤 대리. 결혼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에게 서울 지점은 건강한 긴장을 주는 최고의 일터다. "서울 지점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업체간 경쟁도 그만큼 치열합니다. 힘든 만큼 최일선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은 특히 기억에 남는 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올해 영업의 큰 목표가 '장기 외상금 줄이기'였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거래처와 더 좋은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조색기의 달인'인 장영욱 주임. 팀의 막내인 그에게 서울 지점은 화기애애한 프로들의 일터다. "다른 지점에서 서울 지점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분위기가 무척 화목하고 일할 때는 또 확실히 하더군요.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업무 익혀서 매출 달성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에도 힘쓰고 싶어요. 2010년에 이루고픈 개인적인 꿈이라면, 좋은 여자 만나 장가가고 싶겠네요!"

2010년의 희망을 위해 다시 힘찬 발걸음!

서울 지점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을지로 지역 담당이자 팀의 든든한 허리인 김정석 과장. 말수 적은 그는 속 깊은 정으로 후배들을 챙기고 있다. 김정석 과장의 2010년 소망은 '좋은 후배, 좋은 선배 되기'다. "지금도 후배들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잘해야겠지요? 완벽한 업무 진행으로 지점장님을 든든히 받쳐 드리는 한편 후배들이 힘들 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김래수 대리에게 2010년은 서울 지점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는 해가 될 듯하다. ㈜노루케미칼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얼마 전 서울 지점으로 옮긴 그의 2010년 꿈은 '다른 경쟁사보다 앞선 노루가 되는 것'이다. "그 동안 기존의 ㈜노루케미칼 거래선을 기반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영역으로 거래선을

더욱 넓히려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노루가 최고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아는 서울 지점 직원들답게 일할 때도 늘 때도 최선을 다한다. 건축도로사업부 여름 워크숍 팀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2009년의 추억. 최선을 다해 뛰어준 직원들이 이경철 지점장은 고맙고 대견하다.

“2009년은 안팎으로 참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직원들 덕분에 슬기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2010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줄 것을 믿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지점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마다 확고한 신념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로 뚝뚝 뭉친 이들을 보니, ‘유통 확대를 통해 매출 목표 및 공헌 이익달성’이라는 2010년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의 달인들이 펼쳐갈 2010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SEOUL BRANCH DEPARTMENT OF CONSTRUCTION PAINT “SALES EXPERTS ARMED WITH PASSION”

For the construction paints, the most competitive market is in Seoul where we have set up a branch of department of construction paint. Eight sales experts are working in the Seoul branch, covering the entire Seoul area as well as Ilsan, Paju, Munsan, Uijeongbu, Dongducheon, Pocheon and other northern areas of Gyeonggi-do. We've had an interview with the branch's 'sales experts', covering their stories from the last year as well as their expectations in the New Year.

Working Fiercely in the Biggest Market

Before January 2006, the Seoul branch of department of construction paint was originally located in the main office in Anyang. The branch eventually decided to move to Seoul to penetrate the bigger market and to be near the customers in Seoul. The choice was an excellent one. Since 2006, the branch successfully connected Seoul and the northern Gyeonggi-do, outstandingly managing old and new customers.

Lee, kyoung-cheul is leading the branch, and he takes great pride in his 'sales experts'.

"I'm sure that all NOROO's sales staffs are experts in their field, but I especially take a great pride in my sales staff. They are the best sales experts for the construction paint products with extensive knowledge in the construction paint field. Not only that, they take care of customers with sincerity. Also, our sales staffs have the best teamwork within the department of construction paint, managing about 120 agencies and working hard to open new agencies."

Lee, Hong-ki, a manager, always reminds himself of sales principle.

"It's important to sell paints, but I believe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your customers. Before making any sales strategies, we must be sincere to our customers. The sales will grow when we have good customer relationships. Lastly, I hope that we meet our sales target in 2010 by

putting all our efforts and following our sales principle."

The members of the Seoul branch believe that compared to other branches, the branch is unique with its strong teamwork and spirit. Choi, Myong-hee, an assistant manager, is the only



① 이경철 지점장
② 김윤곤 대리
③ 이홍기 과장
④ 최명희 대리

female employee in the branch. She comments that the members of the branch "take care of each other." "We have a family atmosphere, but we are also very competitive with our jobs. While doing so, we try to help each other. We don't say much, but we understand from the heart that we are always looking out for others. It's like having one great family."



⑤ 김래수 대리
⑥ 장영욱 주임
⑦ 김정석 과장
⑧ 강호진 대리



Overcom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le Cheering Up

In 2009,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both home and abroa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ut Seoul branch ensured its internal stability and came out stronger. Kang, Ho-jin, an assistant manager, has been working in the branch for about 9 years, and he remembers 2009 as the year of "overcoming crisis through wisdom and cooperation".

"It was a tough year. Sales gets tougher every year. I often became agitated when I did not meet goals and became disappointed at myself, but my team stayed by my side, always cheering me up. We've gone through a tough time, and I expect that we will perform better in the New Year."

Kim, Yoon-gon, an assistant manager, just got married. He feels great responsibility from the marriage, and believes that the branch is the best place to work for because it gives him much needed tension.

"Seoul branch is the most competitive branch in the market because it is the biggest. It's a tough place to work for, but it's also very rewarding. The year 2009 was a special year for me due to the global crisis and rising uncertainty, but I tried my best to meet the target, which was lowering long-term credits. It wasn't an easy job, but essential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customers."

Although the youngest member of the branch, Jang, Young-wook is a well-known for his color toning capability. For him, the branch is a workplace of professionals.

"I heard many great stories about the branch. As soon as I joined the branch, I was impressed with its family atmosphere and professionalism. I want to please my team members, so I will work hard to meet the sales target. In addition, I will spend time to improve my capability. Personally, I want to meet a nice person and get married in 2010!"

Taking a Powerful Step toward Hopeful 2010!

Kim, Jeong-seok is a manager of Eulji-ro district, which is the most competitive location even in Seoul. He may seem quiet at first, but he is always looking out for other members. In the New Year, he wants to become a "nice teammate to both senior and junior members".

"Our junior members are doing great, but they need to be even better in the New Year. To do that, I need to work harder and set an example. Therefore, I will do my jobs in perfect order to please our branch manager while taking care of junior members."

Kim, Rae-su, an assistant manager, just joined the branch after working in NOROO Chemicals for 10 years. He hopes that NOROO will come out stronger than its competitors in 2010.

"I've been doing sales activities based on my relationship from NOROO Chemicals, but I plan to expand my customer base in 2010. I want to hear from our customers that NOROO is the best company in Seoul." Despite tense atmosphere, the members of the branch always did their best in-and-outside of the work place, winning the first prize in the summer talent show of department of construction paint. Lee, kyoung-cheul, a branch manager, is proud of his staffs.

"2009 was a tough year but, we've overcome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by putting all our efforts. I have a trust in my staff that they will perform even better in 2010. As a manager of the branch, I want to comfort and take care of my staff members."

Every team members of Seoul Branch trust each other, and they will surely meet the goal of 'recording higher sales and contribution margin by expanding sales network'. The year 2010 will be a great year with never-ending efforts from our sales experts. ♣

Reform &
Do It
Yourself



“A Magic Hand Giving
New Life to Old Goods in the World”
Baek, Sun-hee, a DIY Expert



세계상의 모든 물건들에 제 세계를 불어넣는 마법사의 손

“처음 원목을 만지는데,
거칠면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듯한 나무의 질감이
무척이나 좋더군요.
그래서 원목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집 꾸미기와 재활용에 관심 많은 노루인들이라면, 사보에서 빼놓지 않고 찾아봐야 할 꼭지가 있다. 아이들 장난감, 작은 생활 소품에서부터 큼직한 가구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낡고 헌 물건들이 마술처럼 새롭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공간, 바로 'DIY WORLD'다. 신기하고 놀라운 DIY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백선희 씨. 리폼&DIY 강사, 인테리어 책 작가, 공방 대표로도 모자라 최근 DIY 관련 인터넷 쇼핑몰까지 연, 그야말로 DIY에 인생을 건 리폼 마법사 백선희 씨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미쳐야(狂) 미친다(達)

백선희 씨가 노루 사보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여름. 몇 해 전만 해도 백선희 씨는 평범한 주부였다. 2006년부터 리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믿기지 않지만 불과 3년 만에 나무 공예와 DIY 전문가가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제아무리 거창한 일도 처음 시작은 단순한 법. 백선희 씨의 계기 또한 단순했다.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망가지는 가구를 손보고픈 단순한 바람이 그것.

“가구는 점점 망가져 가는데 새로 사자니 비싸고, 고치자니 남의 손에 확실적으로 맡기기는 싫고, 결론은 ‘스스로 리폼’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한 번 바꿔보자 싶었죠. 처음 원목을 만지는데, 거칠면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듯한 나무의 질감이 무척이나 좋더군요. 그래서 원목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리폼 정보를 찾던 잡지에서 그는 운명의 순간을 만났다. 타일 조각을 깨서 붙인 어느 집 거실 탁자에, 그야말로 ‘꽃혀’ 버린 것. 인터넷에서 타일 정보를 검색하고, 물어 물어 DIY 쇼핑몰을 찾고, 상품과 후기를 꼼꼼히 살펴 참고하고, 덜컥 주문해 집에서 혼자 만들어보며 술한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DIY에 대한 관심, 애정, 희열...

취미가 됐든 일이 됐든 뭔가에 한 번 빠져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 백선희 씨에게도 딱 들어맞는다. ‘내 손으로 가구나 좀 고쳐보자’며 가볍게 시작했던 일에 밤낮 가는 줄 모르고 매달렸다. 그야말로 리폼에 미친 지난 3년이였다.

여자를 위한, 여자에 의한 DIY

백선희 씨는 2009년 2월에 ‘여성들을 위한 공방’을 열었다. ‘목공=남자들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 독특하면서도 차별화된 공간이다. 그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처음 목공을 배울 때의 어려움, 고민, 아쉬움을 고스란히





공방에 녹였다.

“목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 참 많은데 기존의 공방은 주로 남자들 위주, 큰 가구 위주죠. 공구부터 크고 무거운 데다, 원목 무게가 만만치 않아 여자들에게 처음부터 큰 가구 만들기는 무리예요. 여자들이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DIY를 전하고 싶었죠. 소품부터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기계에 대한 무서움은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공방에서 강좌에는 공방이 자리한 경기도 안산뿐 아니라 서울, 남양주, 시흥 등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다. 그만큼 DIY와 목공예 목말랐던 여성들이 많았다는 뜻이리라. 초급과정에서 찻상, 커피함, 작은 서랍장 등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소품들을 만들어본 여성들은 자신감을 갖고 더 큰 가구, 자신만의 창작품에도 전한다. 그리고 백선희 씨처럼 리폼의 ‘맛’에 푹 빠져든다.

DIY에 눈 돌리는 여성들에게 백선희 씨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되도록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라’는 것. 잡지와 블로그에 나오는 예쁜 결과물만 보고 흑해 준비 없이 매달렸다가 낭패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DIY 또한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몇 시간 사포질 하다 보면 허영계 톱밥 가루 뒤집어쓰기 일쑤고,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없이 고민해야 한다.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창조의 희열

“DIY,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푹푹뚫뚫 마술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노력, 힘과 땀을 쏟아야 합니다. 배우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많이 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겨울에는 수축하고 여름에는 늘어나는 나무의 성질도 알아야 하죠. 무턱대고 공구를 사는 것도 말리고 싶어요. 공방에서든 어디서든, 먼저 공구를 다뤄본 뒤 스스로 용도를 깨닫고 갖추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이는 것이 힘이고 이는 만큼 보이는 법. 시간과 정성을 쏟을수록 흡족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몰입이 주는 희열과 즐거움을 아는 백선희 씨는 사람들에게 DIY를 널리 퍼뜨리고 싶다. 특히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여성들에게 리폼과 목공, DIY는 적극 추천할만한 취미다.

“리폼의 장점을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 모든 과정에 몰두하다 보면, 시끄럽던 머리가 어느새 조용해지고 짓눌렸던 자잘한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몰입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취미이지요.”

땀 흘리며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거기다 예쁜 창작물까지 손에 쥐게 되니 그야말로 일석이삼조의 취미인 셈. 현 것을 아끼고 가꿀 줄 아는 어여쁜 마음은, 그가 없어주는 행복한 덩이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날 또 다른 ‘마술’을 노루 독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house decoration and recycling, you must not miss the article about ‘DIY WORLD’, which covers reforming of every old goods from children’s toys and small household props to huge furni-



ture. Baek, Sun-hee, a DIY expert, is responsible for the magic behind amazing reforming process. Her life is all about DIY. She lectures on reform and DIY, and has also written a book about interior. Not only that, she operates her own craft shop and an internet shopping mall. Let's check out the life of a reform magician, Baek, Sun-hee.

Go Crazy

The NOROO Magazine became acquainted with Baek, Sun-hee in the summer of 2008. Until few years ago, she was a normal average housewife, but beginning from 2006, she began to have an interest in reforming. Although hard to believe, she has become an expert in woodwork and DIY in just 3 years. How is this possible? She began by taking a small step. She wanted to reform old furniture that her children have damaged over the years.

"Our furniture became damaged, and it was too expensive to buy a new one. I didn't want somebody else to fix it, so I decided to reform it by myself. I wanted to change it according to my own preference. Touching the rough grain of wood felt great. So I got interested in the woodwork."

She was looking through a magazine for reforming information, and then she stumbled on a page that has changed her life forever. The article was about a table with broken tile pieces on top of it. She got excited about the table, soon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tile and researching DIY shopping malls. Then she read comments about the products and ordered them. The reforming of table took several tries, but she never stopped. She was full of interest, love and joy for DIY.

Like an old saying that your hobby will become your job when you get mad about it, Baek, Sun-hee became crazy about reforming for a day and night for past 3 years.

DIY, for Women and by Women

On February 2009, Baek, Sun-hee opened a craft shop 'for women'. The image of woodwork usually matched as a job for males, but she has broken this stereotype by opening a unique craft shop. She through worries, difficulties and inconveniences when she first started the business.

"Many women want to learn woodwork, but it isn't easy because the tools and furniture are heavy. The weight of wood is also really heavy, so women cannot make big furniture from the beginning. On the

other hand, DIY is easy to learn. By making small props, you can get rid of fear of big tools and machines."

Wo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are visiting her lectures including not only from Ansan, where her craft shop is located, but also from Seoul, Namyang, Siheung and many other places, showing how many women are interested in DIY. They can make tea tables, coffee boxes and drawers in the beginner's course. Eventually, they become confident with their skill and try to make their own reform goods or big furniture. In the end, they get crazy over reforming like Baek, Sun-hee.

Baek, Sun-hee wants beginners to be patient with DIY because it requires lots of studying and experiences. Many women start DIY after pretty reformed goods either on magazines or blogs, but those aren't easy jobs to do. To be an expert, you must go through a learning stage. For example, you can get messy with sawdust and have to make many considerations to make pretty works.

Joy of Creation from Your Fingertips

"DIY isn't an easy job. It's not like a magic, but instead it requires time, effort, energy and sweat. You need to touch the wood and get acquainted with it to be an expert. You must know that wood contracts during the winter and expands during the summer. I also ask that you need to think twice before buying tools. It's wise to experience the tools first, then decide whether to buy them or not."

You get better results by putting in more time and efforts. Baek, Sun-hee knows joy and happiness of being mad about reforming, woodwork and DIY. She believes that DIY is an excellent hobby for women who often get stressed with life.

"There are many merits to reforming, but best of all is that it is an excellent stress reliever. All your headaches and stresses will be gone when you cut woods, work with sandpaper and paint the goods. It's the best hobby to feel the joy of focusing."

DIY is an excellent hobby because you can kill two birds or even three birds with one stone. You will become healthy by working with your body and relieving stress and can make beautiful good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you can save old goods and feel happiness from the reforming. The readers of NOROO Magazine are anxiously waiting for another magic from the fingertips of Baek, Sun-hee. ♣



오кина와(沖縄) 여행기

이번 여름휴가는 아시아의 하와이, 일본 최남단 섬, 천해의 자연 도시로 불리는 오кина와(沖縄)로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도(道)단위와 비슷한 현단위의 섬으로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였으며 160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오кина와(沖縄)는 인구 약 13만 명 정도의 작은(?) 섬이다. 열도의 크기가 동서로 1,000km, 남북 400km에 이르는데, 야에야마 제도는 하와이와 위도가 비슷하고 일본 본섬인 혼슈보다 대만에 더 가깝다. 연 평균 24℃의 아열대기후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다에는 산호초가 자라고 물빛은 에메랄드빛에서부터 짙은 푸른색까지 해안에서부터 번져나간다. 오кина와를 여행하면 할수록 왜 '일본의 진주'라 불리는지 이해가 저절로 됐다.

오кина와는 비싸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꼭 가봐야 할 곳만 둘러보고 휴양을 즐긴다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 여행보다 저렴한 여행이 될 수 있다. 오кина와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여행 전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덴샤(電車, 우리나라 지하철)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교통만으로 여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일본 본토 곳곳은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케이세이(京成)전철과 민간 운영 JR 전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곳은 섬으로 이루어진 탓에 전철대신 모노레일(モノレール)이라는 교통수단과 버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모노레일과 버스는 일반 전철처럼 섬 구석구석을 이동하지 않아 불편한 편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이다. 오кина와의 자연과 함께 막힘없이 뱅뱅 돌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것도 그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행의 즐거움이다.

오кина와에서 볼거리 및 즐길거리는 아래 몇 가지 정도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여러 곳의 비치

오키나와를 생각한다면 대부분 푸른빛 바다가 떠오를 것이다. 모든 산호섬이 그렇겠지만 오키나와에 위치한 수십 개의 비치는 깨끗한 바닷물과 깔끔하게 정돈된 백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인적이 드물다. 휴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보통 섬 제도권으로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차를 렌트할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고 싸게 갈 수 있다.



츄라우미 수족관(美ら海水族館)

오키나와 츄라우미 수족관(美ら海水族館, 츄라우미스미조쿠칸)에서는 세계 최대의 어류 진배상어와 가오리를 다양하게 사육, 번식시키는 한편, 오픈시스템을 통해 살아있는 산호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모습을 전시하는 등, 세계에서조차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가오리, 오니이토마키 가오리가 신선하고 맑은 해수에서 유영하는 당당한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1층에는 심해의 여행으로 오키나와의 심해를 재현해놓은 층으로 진배상어와 가오리의 유영을 관람할 수 있으며, 2층에는 쿠로시오(일본 난류)의 여행이라는 층으로, 세계 최대급을 자랑하는 대형 수조관에서 물가의 생물들과 츄라우미 시어터에서 바다 속의 박력 있는 세상을 맛볼 수 있다. 3층에는 산호초의 여행이라는 층으로 산호의 다양한 생태사육을 볼 수 있으며, 4층에는 대해로의 초대로 츄라우미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동중국해의 따뜻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다.

슈리성(首里城)

1967년(쇼와 42년), 오키나와 본섬 남부에서 발견된 '인골'에 의해, 오키나와에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그 뒤에 1429년부터 1879년까지 오키나와의 류큐왕조가 건재했으며, 슈리조는 류큐왕조의 영지이며 오키나와 관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관광사적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다가 오키나와 본토 복귀 20주년을 기념해 최근에 복원되었으며 1992년 11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중심도시인 나하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오키나와의 주요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나 일본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지나쳐도 좋다.

아메리칸 빌리지

오키나와 남부 차탄초에 위치한 미국풍의 도시형 리조트로서 슈리성을 여행한 뒤 잠시 쉬어가기 좋은 코스. 야경을 감상하기에는 좋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으나 한국에도 많이 있는 풍경이므로 굳이 이동하면서 여행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시간에 안락하게 비치에서 휴식을...

짧은 여행기로 비용, 이동경로, 숙박시설이용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는 적을 수 없지만 내년 휴가 때는 오키나와로 출발해 그곳의 자연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 ♣

+ 글 (주)노루페인트 칠서공장 수지생산팀 이명으로 차장



장성



영암 월출산 땅끝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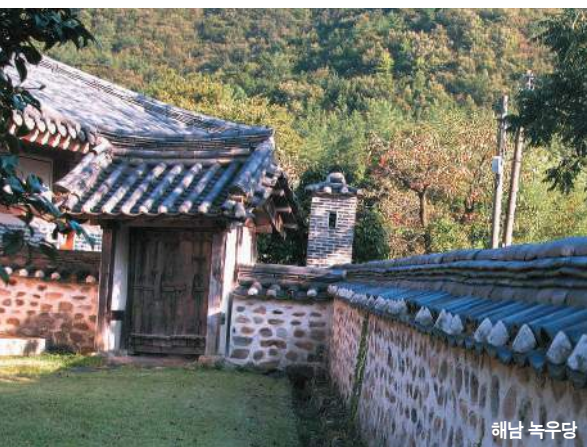
“옴마 미쳤는 갑네”

노숙자 행색인 나의 계획을 듣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옴마 미쳤는 갑네”, “뭇 허러 그리 땡긴다요?”라며 진한 사투리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 평소 기행문 형식의 글에 관심이 있는 나는 배낭여행작가 김남희 씨의 ‘까탈이의 여행-나는 왜 이 길에 오르는 걸까?’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우리 땅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 정도로 그 책은 서정적으로 다가왔고, 60세의 나이에 실크로드 12,000km를 단독 도보 횡단한 올리베르 베르나르의 ‘나는 걷는다’ 책을 읽고 “나도 뭔가 해보자. 근데 거창하게는 자신이 없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소박한 동기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는 못하는 ‘약 450km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걷기’라는 도전 아닌 도전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초행길인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걷는 구간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구간간의 거리, 잠자리 위치, 우회 구간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중에서 저녁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종일 굶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걸어보니 지방에는 의외로 맘대로 밥 먹고 맘먹었을 때 쉬는 게 쉽지가 않았다.

또한 장시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안배와 물집 예방·제거하는 방법, 짐 싸는 방법 등 나름 여러 가지 조사했으나 막상 시작하니 더 자세하게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드는



해남 녹우당



정읍 방장산



수원 화성

시점도 있었다.

1회에 5일씩 3년 일정을 세웠다. 첫해에 해남 땅 끝에서 강진~영암~나주~광주까지 일정이었고 두 번째 해엔 광주~장성~정읍~김제~익산~논산까지, 마지막 올해는 논산~공주~천안~평택~오산~수원~안양이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

첫해에는 무식하게 등산화를 신고 갔다가 둘째 날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물집이 잡혀 4일 동안 내내 절뚝거리며 다녔고, 둘째 해에는 3일차 장성에서 정읍에 이르는 구간에서 아침부터 종일 비를 맞고 걸은 덕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 길거리 약국에서 사먹은 약이 줄려 도저히 못 걷고 길거리 벤치에서 한숨 자고 출발한 기억도 난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이 들었지만 가장 힘이 든 것은 식사할 때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는 날은 아침에 주문하면서 한마디, 저녁 주문하면서 한마디 한 것이 하루 대화의 전부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혼잣말도 하고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있을까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오롯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전무했다.

늘 곁에는 가족과 노루식구들이 있다 보니 사랑 속에서 살

면서 그것을 몰랐구나, 싶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핀잔도 주었지만 걷는데 편하라고 신발도 사주고 물집 방지용 양말도 사주고 주기적으로 생사확인전화(?)까지 해주었다. 노루가족들도 중간 중간 응원의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주었다. 이제는 피가 생기었는지 조금 쉬운 곳을 가보고 싶다. 예를 들면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 빠이 등을 여유있게 둘러보고 싶고 더 큰 바람은 프랑스 생장피드보르에서 시작해 산티아고에 약 800km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는 것이 꿈이다.





인테리어용 도료 '예그리나' MBC드라마 협찬

‘예그리나’ 브라운관을 물들이다

도료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로하스(LOHAS)인증을 획득한 프리미엄 인테리어 도료인 예그리나는 “예쁘고 아름답다”의 순 우리말이며, 자연친화적 요소에서 가장 앞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테리어용 도료이다. 예그리나는 다양한 색상과 함께 텍스처(texture) 질감 표현까지 가능해 한 가지 제품만으로도 고급스런 연출이 가능하며 2~3가지 제품의 조화 및 활용으로 색다른 컬러테라피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MBC 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주)노루페인트 예그리나 제품을 협찬했다. 이번 협찬은 지난 2009년 9월에 MBC 수목드라마 ‘맨땅에 헤딩’ 방영 시 협찬한 제품으로 세트장 도색 후 MBC 담당 미술감독 및 연출자들에게 고급스런 질감 덕분에 인테리어 조명 연출이 좋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협찬된 예그리나 제품은 예그리나 스웨이드 제품으로 주인공 박진희 자택 세트장 내부 벽면에 도장되어 여성스럽고 온화한 색상의 예그리나가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중순 본격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2004년에 방송되었던 ‘결혼하고 싶은 여자’의 4년 후 이야기를 담은 시즌 2로 MBC에서 2010년 1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55분에 방영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사랑을 원하는 삼십 대 여자들의 일과 사랑을 유쾌하게 다루는 작품으로 주인공에 박진희, 왕빛나, 엄지원, 김 범, 최철호, 이필모가 출연한다. ♣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와 티테이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집안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걸게 됩니다. 장식 하나만 보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맘때 방문한 손님이나 지인과 차 한잔을 마실 때 티테이블 위에 조금만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올려 장식해 보세요.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누는 동안 더욱 행복한 티타임이 됩니다.



문의 및 참고 : <http://blog.naver.com/bbsh1105>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준비물

나무토막, 트리 오너먼트,
눈사람 오너먼트, 반짝이 장식,
패브릭 약간, 글루건,
스노우페인트, 네임펜

- 1 트리와 눈사람 모양의 목재 오너먼트를 준비합니다.
- 2 준비한 오너먼트에 페인트나 아크릴물감을 칠합니다.
- 3 트리와 눈사람 머리 위에 스노우페인트를 칠해 눈썹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 4 눈사람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리고 패브릭을 길게 잘라 목도리를 묶어줍니다.
- 5 트리 위에 반짝이 장식을 글루건으로 붙이고 나무토막에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티테이블



준비물

티테이블용 목재, 오일스테인
(베이지색, 브라운색), 나사못,
목공본드, 스텐실도안,
아크릴물감, 스텐실붓

- 1 상판에는 베이지색 오일스테인을, 다리부분에는 브라운색 오일스테인을 칠합니다.
- 2 다리와 다리연결각재를 조립합니다.
조립시 이중기리가 부착된 드릴로 나사구멍을 뚫고 목공본드를 칠한 후 나사못을 박아줍니다.
- 3 상판의 뒷면이 아래를 향하게 놓고 다리를 거꾸로 올려놓은 후 가장자리 여백을 일정하게 맞춰 상판과 다리를 연결합니다.
- 4 상판에 스텐실 도안을 대고 아크릴물감으로 스텐실합니다.
스텐실할 때는 붓끝에 아크릴물감을 골고루 묻혀 붓끝에 소량의 물감만 남도록 티슈에 닦아낸 후 톡톡 두드려찍어줍니다.



희망과 행복의 도시 쿠리티바市

Curitiba

미국의 시사지 타임은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미래의 도시 등 이 모든 것은 브라질 "쿠리티바市"를 묘사하는 수식어이다.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州)의 주도(州都)인 쿠리티바市는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남서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3세계의 전형적인 대도시 가운데 하나지만 이 도시는 특별하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쿠리티바市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와 함께 환경·생태 관련 분야의 훌륭한 시스템에 감동을 느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쓰레기관련 정책이다. 쿠리티바市는 1980년대 후반부터 몇 가지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모아온 재활용품 쓰레기를 학용품이나 식품백(bag)과 교환해 주는 ‘녹색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빈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줄 뿐만 아니라 쿠리티바市와 주변 농촌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과일 등 소농(小農)의 잉여농산물 처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재활용공장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와 극빈층 사람들에게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초반에 시장이었던 자이메 레르네르는 시 정부가 도시 전역에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마련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얻는 ‘그늘과 신선한 물’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쿠리티바는 하천과 그 주변 지역을 토지이용 법률에 따라 개발을 규제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인접 지역에 공원을 개발하고 유수지 역할을 하는 호수를 조성했다. 그리하여 71년까지 단 1개였던 시내 공원수는 14개의 대형공원, 600여개의 광장을 포함해 도시 면적의 18%가 넘는 2,145만㎡를 공원과 숲으로 덮었으며 동물원, 자연림, 조깅 코스,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다. 시는 지금도 연간 17만 그루의 나무와 250만 송이의 꽃들을 구석구석에 심고 있다.

한편 쿠리티바市는 빈민층의 남다른 배려와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빈민층을 위해 운영되는 환경탁아소가 230 곳이나 된다. 한 반이 30명으로 이뤄진 환경탁아소는 열린 교육과 시청각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에너지 절약을 가르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하루 세끼와 간식을 제공하는 탁아소는 빈민공동체를 위한 발상에서 시작 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환경교육이 깔려있다. 쿠리티바市는 무지가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적이라는 인식 아래 환경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을 환경 파수꾼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런 쿠리티바市의 기적은 국제 사회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같은 중앙부처는 쿠리티바市를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 시스템과 그린 시티(Green City)의 모델 도시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대중교통 개혁이나 생태·환경도시 개발의 한 모델로 삼고 있다.



+ 글 편집실
자료 협조 NOROO 소비자 상담실

소비자 상담실

Q&A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 지난여름 장마에 옥상이 비가 새서 고생을 많이 했다. 탄성 우레탄으로 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페인트 도장 시 주의사항은?

A. 옥상의 방수용은 탄성 우레탄 제품으로 하도/중도/상도 시스템으로 도장이 이루어집니다.

(2009년도 가을 호의 소지도장과 하도, 쉘라트 도장에 이어 중도 도장입니다.)

4. 중도 1차 스크래핑 작업

1) 통상 옥상 방수 공사는 중도가 3mm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3mm를 한 번에 도장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스크래핑, 2차 본도장으로 2회로 나눠 도장합니다. 방수 전문 업체 모두 2회에 나눠 도장하고 타사도 모두 2회로 나눠 도장하도록 추천되어 있으며 필히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중도를 한 번에 두껍게 올릴 경우 도막내 공기가 미처 상층부로 빠져나오기 전에 표면이 건조되어 도막이 부풀음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중도는 가사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8℃ 정도에서 당사 크린탄 2100 제품의 경우 18LT 통에서 가사 시간이 15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 교반부터 펼침 작업까지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교반작업과 펼침 작업자 간에 작업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작업속련도가 떨어져 빠른 시간 안에 도장을 못한다면 가사시간이 긴 1액형의 탄성우레탄 제품인 싱글탄 골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도로 온도가 올라가면 가사시간도 짧아지고 가사 시간이 다 달으면 펼침 작업이 불편하고 평활성도 저하되기 때문에 가사시간의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료는 그늘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사 시간 근처에 다 달은 도료를 도장하면 표면 건조가 빨리 오기 때문에 도막내 기포들이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5) 신나를 희석하면 가사 시간은 약간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과량의 신나를 사용할 경우 도막 강도가 저하 및 경화 불량이 발생하므로 부피비 5% 정도 이내 사용을 권합니다. 우레탄 방수제는 하도, 쉘라트, 중도, 상도, 모두 신나는 방수용 전용신나 DR- 790입니다. 간혹 예폭 시 신나나 또는 조성을 알 수 없는 잡표 신나를 사용하

는 경우가 있는데 신나 성분 중에 알콜기가 있으면 경화불량이 되기 때문에 신나는 반드시 우레탄 신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주재와 경화제를 교반한 후에는 도료를 찍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소지에 부어 놓고 펼침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재 경화제가 혼합된 것이 캔 속에 있는 것보다는 소지에 펼쳐진 상태가 가사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6) 중도 도장 시 캔 내부에 잔량을 사용하기 위해 캔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캔 벽면에 묻어 있는 주재가 흘러나와 경화불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중도가 건조가 안 되고 상도를 도장 하면 찌글찌글 거림) 캔을 뒤집어 놓지 말고, 캔 내부 잔량은 후에 작업할 다른 용기에 얹어서 다시 교반하는 식으로 사용 바랍니다.

7) 중도 작업용구는 주로 고무헤라, 양고데, 톱니헤라, 로리를 사용합니다.

8) 중도 도장은 소지가 이슬을 머금은 이른 아침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또 날씨가 더운 하절기는 소지의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대에 도장해주어야 합니다. 방수 도장 경험 많은 작업자는 중도도장을 오후 늦은 시간에 도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중도를 오전에 도장하면 계속 소지온도가 올라가면서 도막 내부에 기공들로 인해 도막 부풀음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중도 도장시간을 오후 늦은 시간 쪽에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으로 필히 준수 바랍니다.) 당사는 오후 4시 이후 도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9) 스크래핑은 소지에 약간에 힘을 주어 문지르고 보통 1.0mm~1.5mm를 도장합니다. 스크래핑 도장 후 2차 본도장전에 도막 상태를 보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도막이 부풀은 곳, 티가 있는 곳) 다시 부분 수정 조치를 합니다.

10) 스크래핑 도장 후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4시간 경과하면 도장이 가능합니다. 스크래핑 도막면은 약간 점착성이 있으나 도막을 밟을때 도막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없으면 후속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2차 본도장은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소비자문화센터 조 희 정 과장
www.noroo.co.kr
031-467-6077
전국어디서나 1588-7700



Q. 청바지나 하얀티 위에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페인팅기법으로 하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품명이 무엇인가? 혹시 세탁시 지워지거나 천이 뻗뻗해지는 것은 아닌가?

A. 청바지, 치마, 티셔츠, 모자, 캔버스화, 조화 등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하게 스프레이형인 패브릭핑고로 가능합니다.

◎패브릭 핑고는?

패브릭 핑고는 독자적인 나노 테크놀러지를 적용한 제품으로 섬유 등의 직물 소재에 스프레이함으로써 간단하고 빠르게 새로운 컬러를 착색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소재는 청바지 및 섬유 제품에 가능합니다.

패브릭 핑고제품의 특성

1) 부착성

핑고는 기존의 불가능한 코팅영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노테크놀러지를 적용하여 재질에 관계없이 적용 대상물의 질감을 유지시키면서 원하는 색상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2)초속건성

핑고는 적용 대상물에 스프레이한 후 10~20초 내에 건조하는 초속건성을 자랑합니다.

3)개성 연출

핑고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DIY 시장에 적절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들을 누구나 손쉽게 간단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리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4)소재 보호

패브릭 핑고 도장 후 직물의 촉감이 뻣뻣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5)세탁 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색 번짐이 없습니다.

[NOROO PHOTO CONTEST]

이아영 주임/쥬아이피케이 영업기획팀
2009 코마린 미니바의 바텐더들입니다. 지난 10월 벅스코에서 개최된
2009 코마린 행사 때, 쥬아이피케이 부스내에 미니 Bar 모습입니다.
Servant Leadership의 일환으로 임원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직원들과
함께 바텐더로 미니 Bar를 운영했던 모습입니다.
(좌) 김진국 이사, 이아영 주임, 강오수 사장(우)



이효정 대리/쥬디피아이홀딩스 부속실
뒤집기에 처음 성공한 우리 아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뒤집기가
무엇이 대단한가 하겠지만
저는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으랏차차~ 뒤집기 한판~!



애독자 퀴즈 당첨자

공지사항

※ N_POST에 원고와 사진을 받습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주)디피아이 홀딩스 전략기획팀 장 연 언 주임
031-467-6527 yyjang@dpi.co.kr

NOROO